

10월부터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병상 수' → '환자 수' 개선

간협, 적극적인 정책활동으로 성과 이뤄내

오는 10월부터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되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 개선된다.

또한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간호관리료 등급을 병상 수가 아닌 '환자 수'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됨에 따라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8월 5일 고시했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기까지 대한간호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는 등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수가 개선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됐다.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이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제외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야간근무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 수(환자 수)가 25병상(환자) 이하이어야 한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산정 시 1일당 1회 산정한다. 의료기관별로 교대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밤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환자 수 기준 간호등급 산정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가 아닌 '환자 수'로 적용된다.

대상기관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환자 수는 일반병동의 입원환자에 한해 산정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호스피스병동의 입원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되기 전 기존 고시에서는 환자 수를 적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서울시와 함께 광역시 구지역 및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를 포함하고 있었다.

간호사 재직일수 적용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했다. 간호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눠 적용하도록 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페널티) 10%를 적용해 신고를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환자 수로 개선됨에 따라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발표했으며,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간호사 인건비·처우개선비로 사용해야

첫째,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돼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추가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간호사 대표인 등과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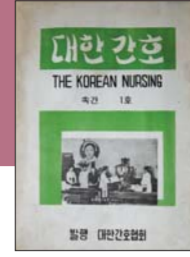
'직접적 인건비용'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를 말한다.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도 해당된다.

'처우개선 간접비용'에는 어린이집 설치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이 해당된다. 단, 학자금 대출, 기숙사 매입·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타경로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도 제외된다.

둘째,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당기관은 관련 자료를 매분기 각각 작성해 연 1회 통합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추가수익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해당 분기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규숙·주혜진 기자



[간호역사뿌리찾기]

'대한간호(속간1호)' 다시보기 ⑧-1

대한간호협회가 1953년 6월 26일 발간한 잡지 '대한간호(속간1호)'에 실린 글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원문(국·한문 혼용)을 서지학자가 한글화한 버전으로 게재하며, 간호사 명칭은 당시 불렀던 그대로 간호원으로 실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 간호교육연구회'에 참석하고 와서 주제로 실린 이귀향 서울대 간호고등기술학교장의 글을 요약한 것이며,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태평양지역 간호교육자 위한 '간호교육연구회' 열려 학생 임상실습 지도할 때 교사가 술선시범 보여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태평양지역에 있는 각국의 간호사업 특히 간호교육 지도자를 위하여 1952년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단기 간호교육연구회를 열었다. 서태평양지역에 있는 12개국의 대표들이 모였다. 우리 대표 이영복 씨, 유순애 씨, 필자 등 3명은 10월 28일 김해공학을 떠나 동경 오키나와를 거쳐 31일 아침 타이페이에 도착하였다.

개회식장에는 언어, 풍속, 습관 등 자연 및 인문 환경이 아주 다른 열두 나라의 국가가 동일한 이념 하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대표들의 우호와 협조를 축복하는 듯 찬란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때는 11월이었으나 부채가 필요할 정도의 더위였으며, 비교적 비는 자주 오는 편이었다.

타이페이는 우리 서울에 비해서 대체로 도로도 넓고 건물도 큼직큼직하였으며, 아열대성 가로수가 연도에 아름답게 우거져 있어 길가는 나그네에게 그윽한 녹음을 풍기고, 거리거리는 편이나 깨끗하고 아늑한 편이었다. 그러나 전차는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자전거, 삼륜차, 버스가 시내의 중요한 대중 교통기관으로 크나 큰 구실을 하는 것은 좀 이채였다. 일반 물가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대체로 고가였으나 식료품만은 흔하고도 할한 편이었다.

회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토의된 여러 가지 난문 중에서 다음 네 가지 문제를 채택하고,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을 따라 소속을 밝히되 동일국의 대표가 같은 그룹에 모이는 것은 가급적 피하였다. 분과회의가 끝나면 전체회의에서 비로소 결론을 얻는 것이다. △제1분과위원회-미개지에 있어서의 간호사업 △제2분과위원회-간호학교 교과과정 △제3분과위원회-교수법 △제4분과위원회-대인관계.

분과위원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기로 한다. [제1분과위원회-미개지 간호사업] 미개지에 있어서의 간호사업은 고사하고 여자들의 일반 초등교육도 이제 겨우 울트는 후진국에서 어떻게 간호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이것은 관계 땀비들로 말미암아 토의하여 해결방법을 얻도록 논의되었다.

[제2분과위원회-간호학교 교과과정] 먼저, 균형 있는 교과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둘째, 간호이론과 실습의 관련성인 바 이는 요컨대 이론 후에 실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임상실습 지도 문제인데, 교사의 술선시범 진두지휘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서 어떻게 얼마나 사회에 직접 봉사할 수 있는 보건간호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1. 모집구분 및 자격

가. 모집 구분: 신입간호사
나. 모집 자격: 2020년 2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2.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 경영진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전형방법 및 일정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접수기간

2019. 08. 15.(목) ~ 08. 28.(수) 13:00

4.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란(www.dumc.or.kr)
나. 홈페이지 지원서 작성 후 아래의 제출서류 이메일(hra@dumc.or.kr)로 최종 접수

5. 제출서류

가.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석차 기재 必) ※ 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수 제출
나. 관련 자격증(보건, 어학, 컴퓨터 등) 사본 각 1부(제출시 우대)
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채용공고 첨부 양식 다운로드) 1부
라.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에 한함)
마. 취업보호대상 증명서 1부(대상자에 한함)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며 지원자의 기재사항 착오, 채용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모든 전형결과는 개인별 휴대폰 또는 e-mail로 통보되오니, 지원서 작성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증명서류 첨부 필수)
라. 자세한 사항은 병원 홈페이지(www.dumc.or.kr) 채용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동국대학교의료원 일산행정처 인사팀 031-961-9306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자비를 바탕으로 건강한 간호문화를 이끌어 갈 신입간호사님을 모십니다.

